



#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 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담: 1577-3993 및 시도지부

# The·K



### Interview

윤일현 광주 삼각초 교사  
위건욱 광주 산수초 교사

### 브랜뉴 여행

우에노, 모두의 모든 걸음을 믿으며

### 꿈꿀 공간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nthly Magazine  
April 2019  
Vol.20

# CONTENTS

2019 APRIL VOL.20



4

**여는 글**  
내가 잠든 사막

6

**Essay**

아이들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요?

**염정애** 충북 괴산 문광초 교사

8

**Interview**

신비로운 습지에 숨을 불어넣다

**구본학**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14

**Interview**

선생님이 체육을 지켜줄게

**윤일현** 광주 삼각초 교사 & **위건욱** 광주 산수초 교사

18

**아름다운 동행**

우리만의 수학여행을 떠나다

**김혜진 & 이현정** 서울 보성여고 교사

24

**먼 나라 교육 편지**

남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

**조현경** 국립국제교육원 해외파견교사

28

**트렌드 GO GO**

욕망의 세포를 정밀하게 찢러라,  
1인 마켓이 부상하는 이유

30

**행복 만들기**

종이 위 소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림교육행정 동아리 '기분 좋은 종이 한 장'

34

**네오필리아**

일상 속 미세먼지 해방 아이템

36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①

우에노, 모두의 모든 걸음을 믿으며

42

**문화 산책**

어쩌면 나도 멋지게 그릴 수 있어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44

**꿈꿀 공간**

나만의 일기장을 채우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48

**The-K Focus 1**

더 행복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The-K은빛동행 앙코르 청춘아카데미'

52

**The-K Focus 2**

슬기로운 금융 생활의 시작  
신규 회원 위한 공제회 이용 가이드

56

**The-K Family**

넘실넘실 흐드러진 봄을 따라 설악산에 오르노라  
새 단장한 The-K설악산가족호텔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4월 즉석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나를 그리는 시간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발행처

발행일

**편집**

기자

객원 기자

교열

**디자인**

아트 디렉터

디자이너

**사진**

포토그래퍼

사진 자문

법률 자문

애플리케이션 제작

제작 인쇄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2019년 4월 1일

정수희 jsh@swadcom.co.kr

김민정 이경희 이성미 장유정

박해경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한상무 황원 장병국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주)아이원기술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 내가 잠든 사막

어디선가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힘들고 외롭기도 합니다.  
바람을 막아도 손등에 낀 먼지는 여전합니다.  
네모 안의 세상은 고요해 보이지만  
밖은 사막만큼 험난하며 고된 연속의 길입니다.

사막은 길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런 길 없이 모래만 가득한 곳이지요.  
자갈에 걸려 넘어지고, 험 험한 별판이 도리어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여정에는 사막보다 더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 ‘일생에 꼭 한번 사막을 경험하라’

나만의 틀을 살짝 벗어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조금씩 주저함을 벗어던지고  
누워 갈 수 있는 슬리핑 버스를 타고  
모래로 가득한 별판을 맨발로 걸으며  
마주친 내음도 느끼면서요.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워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그리는 시간.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는 순간.  
어쩌면 특별한 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가올지도 몰라요.

사막 탐험가 남영호 대장은 말합니다.  
“사막을 자세히 보면 황홀감이  
들 정도로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완벽에 가깝게 정화시킨다.”

4월, 다양한 색을 지닌  
나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황홀한  
내 인생의 탐험가니까요.

# 아이들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요?

글 **염정애**(충북 괴산 문광초 교사)

저는 손가락 다섯 개만 활짝 펴면 되는 숫자,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작년 한 해를 꾸렸습  
니다. 우리 학급은 ‘꿈틀이’라는 애칭이 있었답니다. 꿈틀이들은 처음에 이 애칭을 심하  
게 거부했어요.

“선생님, 왠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더 예쁜 말로 하면 안 되나요?”

꿈을 향해 꿈틀꿈틀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지은 꿈틀이는 부를수록 익숙해져갑니다. 꿈틀  
이들과 보낸 시간 중 4월 어느 날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부산스럽고 서먹서먹한 3월이 지  
나니 우리 학교 주변에 봄을 알리는 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편지를 씁니다. 교류 학급인 충남 보령 월전초 3학년 친구  
들에게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다녀와야 했어요. 충북 괴산에 있는 문광초 옆에는 작은 개  
울이 있어요. 우체국을 가기 위해 개울가를 건너고, 우체국에서 편지 봉투에 주소를 적어  
우리가 쓴 편지를 그 안에 정성스레 넣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곳 친구들도 우리를



위해 답장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요. 4월은 이렇게 두근거리는 설렘이 존재하잖아요.  
그날은 이틀간 내린 비가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줘 공기가 차가우면서 신선함이 전해오는  
날이었어요. 아이들과 처음 손을 잡고 학교 밖으로 나간 날이기도 했지요.

꿈틀이들과 우체국에서 나와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과자 봉  
지에 적힌 가격 그대로 받는 구멍가게도 들렀어요. 꿈틀이들은 과자 몇 봉지를 손에 쥐어 들고  
교실에서 알콩달콩 나눠 먹을 생각에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들떴지요.

우리는 다시 개울을 건넜고, 몇 걸음만 더 걸으면 닿을 우리 학교 후문이 가까워지자 걸음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내친김에 좀 더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싫다 소리를 안 하지요. 이걸 진리잖아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산책길을 걸기도 하고, 사진  
도 찍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 희주가 갑자기 제게 기분 좋은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장미가 떠올라요.”

마침 그때 주변에는 짙레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다가올 5월에는 장미로 뒤덮일 곳이지요.  
저는 “왜?”라고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학생이 제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희주에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꽃을 닮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부  
탁했어요. 팬지, 데이지, 라벤더, 튜립... 아름다운 꽃들의 이름이 희주의 머릿속에서 바로바  
로 튀어나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교실 밖 세상, 학교 주변을 걸어보는 날을 만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날이니까요. 3월의 낮شم을 던져버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에  
게 조금씩 다가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4월. 우리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가슴을 열어 아  
이들을 더 크게 품을 준비를 해야 하네요. 오늘도 아이들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염정애** **충북 괴산 문광초 교사**  
열 사람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담고 삽니다.  
책에 관심이 많아 학생들과 다양한 독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선  
생님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비경쟁 독서  
토론 모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 신비로운 습지에 숨을 불어넣다

구본학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동화나 소설 속에서 축축하고 무서운 곳으로 묘사되며 버려진 땅으로 여겨진 습지(濕地). 사전적 의미조차 '습기가 많은 축축한 땅'인 습지가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재조명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중심에는 생태학자인 구본학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있다. 그를 통해 습지는 새로운 생명력을 찾았다.

글 김민정 사진 한상무



Koo BonHak



**생명의 땅, 습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지만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탓에 계절과 자연을 만끽할 수 없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한 지금, 습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생물이 서식해 생태계의 보물 창고라 불리는 습지는 오염 물질을 걸러줄 뿐 아니라 탄소를 저장해 기후변화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강물을 저장하는 담수 기능과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이 하류로 흘러가는 속도를 늦추는 홍수 조절 기능, 습지생태계 식물을 통한 수질 정화 기능을 갖춘 습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식목일과 지구의날이 있는 4월을 맞아 환경과 생태 보호 고찰을 위해 구본학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만났다. 습지생태 이론서이자 습지 교과서로 통하는 <습지생태학>의 저자인 구본학 교수는 습지는 생태계라는 시각에서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습지를 연구했다.

“20여 년 전 처음 습지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은 습지의 불모지였습니다. 습지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었고, 전문

가들도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 해석했지요. 모든 생물에 필수적인 물을 머금고 있는 습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되어온 유기물이 저장된 창고인 습지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통으로 발전하는 생태 환경**

어릴 적부터 생태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구본학 교수의 꿈은 과학자였다. 공부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공부였다는 그는 방대한 과학 영역 중 자연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조경학을 택했다.

“조경학은 생물에 기반을 둔 학문이지만 계획, 시공 등 실천할 수 있는 것과 미적인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며 10년간 산업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며 공부를 계속 이어가던 중에 좋은 기회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는 만큼 친밀감이 높다.



권위적이기만 한 교수가 아닌, 인생 선배로 학문적 의견을 나누고 교감하기에 학생들 사이에 ‘새싹’ ‘어린왕자’로 통한다. 구본학 교수의 하루는 쉼이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며 논문과 집필,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

“여느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교수라는 본분에 충실하면서 2017년까지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라는 생태복원 전문 학회의 학회장으로 대외 활동을 했고, 현재는 국제생태문화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생태문화포럼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생태와 문화에 대한 현안, 이론과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친교를 나누는 학술 모임이다. 때로는 학술 이론으로, 때로는 기술적 성과로 국내외 생태문화자원을 답사해 우리가 당면한 생태환경 문제와 역사 인식, 문화 현상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생태문화자원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는 이를 ‘생태문화탐방’이라 칭했다.

그곳이 어디든 습지가 있는 곳이라면 한시의 머뭇거림 없이 달려간다는 구본학 교수. 그는 누구보다 습지에 푹 빠진 생태학자다.

**지구를 위한 움직임의 시작**

구본학 교수와 천안12경 중 하나인 천호지로 향했다. 미세먼지가 가득해 하늘이 맑지는 않았지만,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에 조성된 작은 습지에 닿으니 마음이 정화되는 듯했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구인 모두가 함께 대처하고 노력해야 하죠. 정부에서는 이미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생태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면 토지이용계획적 수단을 통한 대응과 생태자원을 통한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적 수단은 생태 도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전략으로 요즘 강조되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생물 다양성, 바람길과 생태 네트워크 등을 말하는 스마트그린도시 전략이다. 생태자원적으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습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 산림, 소규모 생태 공간, 농경지 등 생태자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기능적으로 배치해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구본



학 교수는 이에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온난화 완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열쇠는 습지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습지식물과 날아오는 새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그는 두 가지 신조를 품고 있다. 첫 번째는 생태문화로 보는 시각이다. ‘Human, Nature and Culture.’ 사람은 곧 자연이며, 생태원리는 문화 현상과 더불어 인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을 형성한다는 전제 아래, 공간을 해석하고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 없는 경험’ ‘우연히 발견한 즐거움’이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찾아 틈만 나면 지구 끝까지 찾아 나선다. 우연히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찾아내 행복해한다고. “지난 세기의 멸종이 자연현상에 의한 멸종이라면, 인류세의 절멸은 말 그대로 인간 자체가 원인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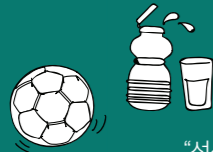
르게,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인류세는 인간 활동에 의한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 기타 범지구 환경문제 등에 의해 여러 생물종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멸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잠시 뒷전으로 밀려난 황사, 여름밤 잠 못 이루게 하는 열대야 현상, 수질오염 등 날마다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에 직면하고 있지요.” 구분학 교수는 기초적인 생태 지식을 기반으로 환경문제나 도시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2009년 초판이 나온 <습지생태학>에 그동안 연구한 내용과 지속적으로 축적한 학술 자료와 실무 자료를 담은 개정판을 출간했다. 그런데도 아직 습지생태학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구분학 교수. 그의 행보에 우리와 미래 세대의 습지생태계 운명이 달려 있기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 모든 생물에 필수적인 물을 머금고 있는 습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되어온 유기물이 저장된 창고인 습지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 선생님이 체육을 지켜줄게

윤일현 광주 삼각초 교사  
위건욱 광주 산수초 교사



“선생님, 오늘 체육 뭐해요?” “비 와서 체육 못 해요?” 윤일현 교사의 일과는 아이들의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쫓르르 달려와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은 왠지 모를 몽클함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낀다. “오늘?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우리 체육 시간을 지켜줄게!”

글 이성미 사진 한상무



Yun Il Hyeon  
윤일현 광주 삼각초 교사

Wi Keon Uk  
위건욱 광주 산수초 교사

### 준비, 지금은 실내 체육을 할 시간

“하나, 둘, 셋, 시작!”

바닥에 놓인 동그라미를 따라 선생님이 달리기 시작한다. 선생님이 앞서 밟은 동그라미를 따라 밟으며 민규도 달린다. 채 원이와 다예도 뒤를 쫓는다. 창밖에 부슬부슬 비가 내려도 놀이는 멈추지 않는다. 대신 교실 안에는 햇살 같은 웃음이 채워진다. 선생님이 술래가 되었다가 가람이가 술래가 되었다가... 놀이 안에서 어른과 아이, 교사와 학생의 경계는 사라진다.

“저는 체육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예전에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밖에 나가지 못해 아쉬웠는데, 지금은 학교 안에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더운 날, 추운 날, 미세먼지 많은 날이면 엄마가 운동장에 나가는 걸 많이 걱정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친구들과 실내에서 노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미세먼지, 황사, 궂은 날씨,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이유로 체육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하지만 광주 삼각초 아이들은 체육 수업이 없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놀 수 있다는 걸 실내 체육을 통해 배운다. 삼각초에서 체육 교과를 담당하는 윤일현 교사는 실내 체육 수업 덕분에 함께 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싶다는 꿈을 꾀다.

“현행 체육 교육은 네 가지 숙제를 안고 있어요. 첫째, 체육 시설이 부족합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할 만한 실내 체육 시설이 부족해요. 둘째, 학생마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성별, 운동 기능 등에 따라 종목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하고, 이는 참여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셋째,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교사가 체육 시간에 부담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때문에 체육의 본질적 가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내 체육이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과 달리 실내 체육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윤일현 교사는 주로 활동량을 높이기보다 재미와 흥미 위주의 활동을 우선시한다. 또한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은 경쟁 안에서 위축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내 체육은 그렇지 않다. 운동신경과 상관없이 소극적인 아이, 내성적인 아이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

작은 실내 공간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은 생각보다 유쾌하고 즐겁다. 성별과 운동신경, 좋아하는 종목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마음껏 어울리고 또 웃는다. 키가 큰 민규도, 앞으로 쑥쑥 자랄 현재도, 환한 다예도 모두 잘 어울린다. 더욱이 교사도 친구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아이들과 소통하기를 어려워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세요. 한



번은 아이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옆 반 선생님이 ‘무슨 일이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려요?’ 하며 찾아 오셨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놀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정리해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죠. 마침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드립니다’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내 체육 놀이를 엮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함께 펼친 교사들의 꿈**

윤일현 교사의 생각에 평소 뜻을 같이하던 동료 교사들이 능력을 보탤다.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한 위건욱 광주 산수초 교사와 평소 지역 교과서 등에 삽화를 그렸던 김가현 광주 오치초 교사가 모인 것.

세 사람은 수백 종류의 놀이 중 적합한 것을 추려내고 네 가지로 묶어 정리했다. 큰 틀은 로제 카유아(Roger Caillois)의 저서 <놀이와 인간(Les jeux et les hommes)>에서 나온 놀이인 미미크리(Mimicry), 아곤(Agon), 알레아(Alea), 일링스(Ilinx) 등으로 따랐다. 그리고 세부적인 놀이 과정은 세움(준비물), 깨움(준비운동), 배움(놀이), 바꿈(응용), 나눔(정리)으로 다시 나누었다. 그렇게 51가지 실내 체육을 정리한 <덥든 춤든 비 오든 우리는 논다>가 탄생했다.

“이 책은 단순히 실내 체육의 종류와 방법만을 정리한 책이 아니에요. 곳곳에 교사로서 겪은 에피소드와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미래, 교육자의 모습도 담았어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작은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서 신호를 알아채야 하죠. 물론 실내 체육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교사가 가장 빠르고 가깝게 친해지는 방법은 함께 움직이며 놀이로 가까워지는 것이니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요. 저는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사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아이와 교사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뿐입니다.”



그는 아이와 교사가 함께 팔짱을 끼고, 서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놀이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극적이던 아이가 실내 체육을 통해 적극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물론 이 책을 통해 행복을 찾길 바라는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된다. 위건욱 교사는 크고 작은 일로 항상 가슴 한편을 눈물로 채운 샘 하나씩을 갖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 책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 “오늘날 교육 현장은 너무 힘들어요. 교권 몰락에 대한 이슈부터 각종 민원에 마음 다칠 일도 많고요. 하지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요. 저는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사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아이와 교사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그뿐입니다.”

윤일현 교사도 마찬가지. 그가 실내 체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 역시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고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아이들에게 “우리 같이 놀까?”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책을 보고 ‘이 놀이는 힘들지 않을까?’ ‘이걸 아이들이 좋아할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놀이의 종류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면 아이들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임할 거예요.” 아이와 교사가 함께 웃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많은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신발 끈을 질끈 묶는다. 언젠든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은 덥든 춤든 비 오든 행복할 것이다.

우리만의  
수학여행을  
떠나라

퇴근길의 추억을 말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 여고생의 얼굴이 비쳤다. 같은 반은 아니지만, 매일 집에 같이 가는 제일 친한 친구. 집에 가는 길에 같이 떡볶이를 먹고 헤어져야 할 것 같은, 늘 마음이 맞는 친구. 두 사람은 그런 여고생 같았다. 서울 보성여고에서 여고생활 같은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과 우리만의 수학여행을 떠났다.

글 장유정 사진 한상무

서울 보성여고 교사  
김혜진 이현정



보성여고 하교 시간에 '따르릉' 자전거 소리가 울리자 두 대의 초록색 자전거가 운동장을 지나 교문 밖을 빠져나갔다. 자전거를 탄 풍경에는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소녀들의 하룻길 같은 이 이야기는 사실 보성여고 두 젊은 교사의 일상이다.

“퇴근할 때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같이 내려오면서 핫도그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김혜진 교사는 이현정 교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고작 20분 남짓 한 시간이지만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은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진다고 했다.

사연을 신청한 날도 여느 하루와 같았다. 이현정 교사의 퇴근을 기다리던 김혜진 교사가 우연히

<The-K 매거진>을 보았고, “우리 이거 신청해 볼까요?”라는 그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아름다운 동행을 떠나게 되었다.

제주는 모든 곳이 배움터

김혜진·이현정 교사가 선택한 여행지는 제주도. 걷고, 보고, 즐기고, 배우는 모든 걸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저희는 시간만 나면 같이 뭘 배우러 다녀요. 그러다 다른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고 싶어 ‘독립운동’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읽고, 배우고, 운동 등을 함께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일까. 그들의 여행엔 학구열이 묻어났다. 발을 내딛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했다. 제주의 작은 돌 하나도, 푸릇함이 올라오는 파발에 흠뻑 젖은 유채꽃 송이도 그들에

겐 볼거리였고, 배울 거리였다. 제주라는 새로운 땅에 도착한 김혜진·이현정 교사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끊임없이 번졌다.

처음 향한 곳은 김녕성세기해변. 성세기라는 이름에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작은 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성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아름다운 자그마한 백사장에 새하얀 모래가 눈부시게 빛났다. 하얀 모래 위로 부서지는 파도는 바람과 만나 끝없이 제 목소리를 냈다. 성세기해변 뒤로는 김녕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데, 그 모습 역시 육지 사람에게는 장관이었다. 거대한 너럭바위 용암과 풍차를 돌리는 바람, 그리고 그 위에 선 여자 둘. 제주의 삼다(三多)가 한데 모여 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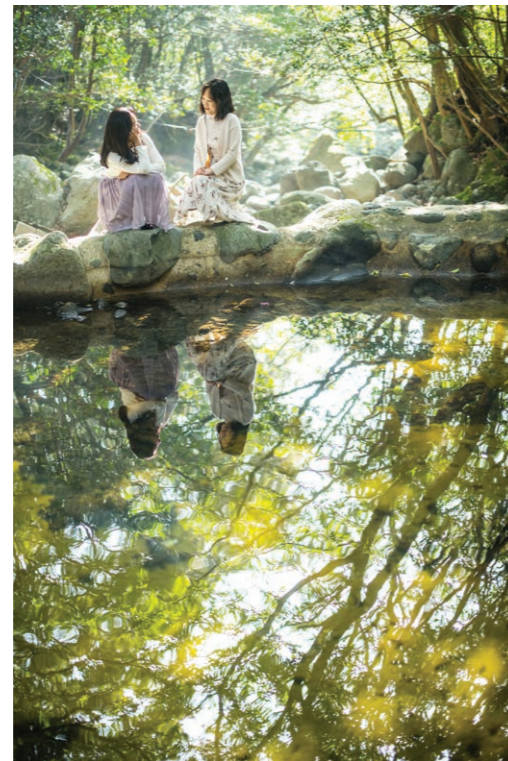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아이로 자라게 하는 일**  
잠시 바람을 피하기 위해 카페로 향했다. 김녕 바다 위로 떨어지는 일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

다. 이곳에서 우린 일몰만큼이나 완벽한 선물을 받았다.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이현정 체육교사가 바다를 등지고 바람을 맞으며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리고 보니 저희가 친해진 계기가 요가예요. 부임 첫해에 이현정 선생님이 여는 요가 교실에 청강생으로 들어갔거든요. 불편할 만도 한데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때 반했죠.”

제주만큼 아름다운 이현정 교사의 모습을 보니 김혜진 교사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저녁에는 제주의 자연산 활어회를 맛보러 김해횃집으로 향했다. 제철을 맞은 활어, 열 가지가 넘는 반찬으로 한상이 제대로 차려졌다. 바다맛가득한 해초에 해삼 내장을 찍은 회를 한 점 올리고 토하젓으로 간을 하니 제주의 늦은 겨울과 일찍 온 봄이 입안에 함께 펼쳐졌다. “이건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라고 가르쳐주시는 주인아주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두 교사에게서 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학교를 오기 싫어하던 학생이 저 때문에 학교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

엇이든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제가 좋아하는 <지루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감동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김혜진 교사의 이 한마디는 비단 이런 순간에만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눈빛이 그러했고, 교육 연수를 떠나는 그녀의 열정이 그러했다. 이현정 교사 역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김혜진 교사의 말에 동의했다. 열정이 가득한 두 교사는 꿈꾸는 상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학교를 오기 싫어하던 학생이 저 때문에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행 내내 배려가 넘친 이현정 교사다운 답변이었다. 수학을

가르치는 김혜진 교사가 뒤를 이었다.

“나만의 색깔이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수학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깨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형 수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지만 아이들을 통해 계속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 교육자, 동반자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꿈꾸는 교사들과 함께 있는 보성여고 학생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 봄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

이튿날에는 봄기운 가득한 광치기해변으로 향했다. 성산일출봉에서 섭지코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광치기해변은 제주 올레 1코스의 마지막 지점이자 2코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펄펄 끓던 용암이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두 사람만의 시간이 웅덩이 위  
파동이 되어 웃음소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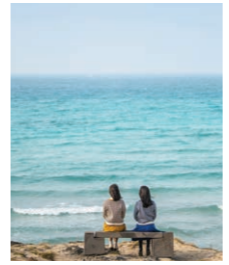


김혜진 보성여고 교사

이번 여행은 저한테 힐링 여행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해방구가 되어주던 현정 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제주도의 숨은 비경들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앞으로는 어딜 가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정 보성여고 교사

1박 2일의 시간 중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건 혜진 쌤의 눈을 마주 보던 순간일 것 같아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지만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혜진 쌤의 눈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웃는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평상시에는 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혜진 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 더 즐겁고 감사했어요.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바다와 만나 곧으면서 비경이 되었다. 그 어떤 조각가가 이토록 완벽한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 용암 지질과 녹색 이끼 그리고 성산일출봉이 함께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태초를 만났다. 광치기해변 옆에는 샛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뜨거운 용암의 흔적과 대비되는 봄날의 유채꽃 향기가 두 사람의 눈에 새겨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을 보니 왜 박준 시인이 "봄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이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다. "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이렇게 혜진 쌤의 얼굴을, 눈을 계속 쳐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이끼계곡. 효명사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이 계곡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제주의 숨은 비경이다. 질푸른 이끼가 현무암을 덮고 울창한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항상 관광

지 위주로만 여행했는데, 이제는 여행지의 모든 곳을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끼로 뒤덮인 돌문인 '천국의 문'을 지나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효명사 한편에 있는 물웅덩이 옆에 앉아 현무암으로 공기놀이를 시작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여고생이었다. 서로 전혀 다른 생을 살다 같은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조건 없이 친구가 되는 이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내며 평생 함께하는 친구로 자라가는 존재들이 여고생 아니던가. 김혜진·이현정 교사 역시 그랬다.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닌 두 사람이 보성여고라는 교집합 안에서 친구가 되기로 하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교집합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교집합은 같은 순간에 함께 웃는다는 것.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두 사람만의 시간이 웅덩이 위 파동이 되어 웃음소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김녕성세기해변(김녕해수욕장)**  
거대한 너럭바위 용암 위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김녕성세기해변은 제주만의 특이한 지형을 엿볼 수 있는 지질 트레일 중 한 코스다. 인근에는 여름 피서지로 제격인 용천동굴, 만장굴 등과 갯돔과 노래미가 잘 잡히는 갯바위 낚시터가 자리한다.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30

**김해횃집**  
용두암 근처에 있는 김해횃집은 메뉴가 따로 없다. 제철에 맞는 싱싱한 제주산 활어회 한상을 인원수대로 내는 곳으로, 열 가지가 넘는 반찬과 젓갈, 회를 초밥과 함께 제공한다. 예약제는 아니지만 바로 들어가려면 당일예약을 추천한다.  
📍 제주시 용담로5길 25 용두암1차현대A  
☎ 064-711-1318

**광치기해변**  
광치기해변은 성산일출봉 옆으로 떠 오르는 태양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는 유명 포토 스팟이다. 펄펄 끓던 용암이 바다와 만나 빠르게 굳으며 형성된 지질 구조를 볼 수 있다. 바닷물에 가려졌던 비경이 드러나는 썰물 때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끼계곡**  
황칠나무 재래지인 이끼계곡은 관광 명소 이름 높은 쇠소깍의 시작점에서 효명사로 오르는 길목에 있다. 푸른 이끼에 덮인 계곡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또 이끼에 덮인 아치형 돌문인 '천국의 문'은 몽환적인 느낌을 주어 사진으로 담기를 권한다.  
📍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815-41



## 남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

Paraguay

### 올라(Hola)

우연히 한국어학당의 게시판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원해외파견사업' 공고를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해외, 특히 남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파견국가운데 파라과이를 본 순간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1년 남짓 남은 대학원 과정, 하고 있던 일 등 여러 가지 일이 걸렸지만 과감히 도전한 것은 몇 년 전 남미 배낭여행을 하면서 만난 따뜻하고 친절했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남미에서 이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죠. 바로 해외파견 교사가 제게 주어진 기회인 것 같아 끌림을 받아들였습니다. 2016년 여름, 한국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더 뜨거운 남미로 가기 위해 3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환승에 환승을 마치자

올라(Hola)는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말입니다. 지도상 한국의 반대편이자 남미의 중심에 있는 파라과이에서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모르는 사람도 친근한 미소와 인사를 건넵니다. 남미의 심장이자 여유와 친절, 경쾌한 인사가 가득한 파라과이를 소개합니다.  
글·사진 조현경(국립국제교육원 해외파견교사)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도착했습니다. 8월의 파라과이는 한국과 반대로 겨울이라고 했지만 파란 하늘과 무성한 초록 잎사귀 덕분에 겨울다움을 느낄 수 없었죠. 큰 나무에 흐드러지게 핀 노란색 꽃인 라파초(La Pacho, 파라과이 국화)가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이 파라과이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째 한국어를 가르치며 학생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 충격, 하지만 이해돼요

처음 파라과이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였어요. 가장 이해할 수 없던 것은 아침에 비가 많이 오면 학생들이 거의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비가 오기 때문



학교명칭 변경. 기존 명칭인 ISE(Instituto Superior de Educación)에서 2019년 INAES(Instituto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로 변경됨.

이죠. 게다가 파라과이인 선생님들조차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있는데도 말이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여기에선 당연히 여기는 것에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나 이들의 사정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곳은 배수 시설이 열악해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강처럼 변해버립니다. 심하면 차가 떠내려갈 정도이니 사람들은 도로를 건널 수 없어 발이 묶이곤 하지요. 저도 강이 된 도로를 본 후 이들의 행동을 절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류장이 아니어도 버스가 승객이 원하는 곳에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서서 손만 들면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검은 매연을 뿜어대며 출입문을 활짝 열고 삐걱거리며 달려오는 버스가 처음엔 어찌나 겁이 나던지 탐험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위험천만하게 아무 곳에서나 정차하고 활짝 열린 문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버스가 오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버스를 타는 저를 봅니다. 그러나 서서히 교통법규가 세워지고 있어 버스 출입문은 꼭 닫고, 정류장에서만 상하차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의 편리함에 젖어 있던 걸까요?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없으니 약간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 개선되는 환경에 박수를 보냅니다.

###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남미 유일의 한국어교육학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인 이나에스(INAES, Instituto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 Dr. Raul Peña)는 파라과이 교육부 산하의 고등 교육기관입니다. 일반 대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4년제 학사 과정으로 학사 학위와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파라과이 교사의 대부분을 양성합니다. 이나에스에 한국어교육학과가 개설이 된 것은 2013년, 학교 역사에 비해 신생 학과로 현재까지 2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 6월 3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졸업생들은 주 파라과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거나 한국어교육과에서 조교로 일하는 등 대부분 한국과 관련한 일을 합니다. 재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뿐 아니라 교사로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스페인어로 교육학 수업도 들어야 합니다. 현재 50여 명의 학생이 파라과이인 한국어 교사를 목표로 한국어 실력 향상과 교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의 정(情)을 느끼게 해주는 학생들

이곳 학생들은 순수합니다. 처음에 학생이 자기가 마시던 테레레를 불쑥 내밀며 마시라고 할 땐 정말 당황했습니다. 테레레는 빨대가 꽂힌 김을 돌려가며 같은 빨대를 사용해 마시는 남미의 대표적인 허브차입니다. 테레레를 권하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이기도 하죠. 지금도 거절할 수 없어 마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또한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강의실 게시판에 서로의 생일을 적어두고 조촐하게나마 축하해줍니다. 제 생일에도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강의실 안을 축하 메시지로 가득 꾸미고 파라과이 전통 음식인 음베주(Mbeju, 치즈를 넣은 토르티야)를 케이크처럼 쌓아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머쓱했지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의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전체 학생이 학과 사무실로 몰려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땐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교사로서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낀 순간이었죠.

###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 문화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중

정규 수업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대학생인데도 정규 수

업 외의 별다른 활동이 없어 놀랐죠. 이들은 학교생활이 단조롭고 따분하다고 불평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아리 문화를 알려주고자 한국 문화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가입한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 판소리와 민요, 사투리, 한식, K-Pop을 활용한 UCC 제작 등 매주 주제를 달리해 체험하며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의 참여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선후배 개념이 없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소속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활기를 찾았다는 아이들을 보며 그것만으로도 뿌듯했고 소임을 다한 듯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통해 이들이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니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결성해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한국 문화 아카데미를 기획·주관해 운영했습니다. 이는 6주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반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의 경험을, 평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에게는 배움의 장이 되었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매주 피드백과 수업 도구 준비 등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치



기도 했지만, 마지막 주 수료식 때 모든 노력의 결과가 기쁨과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어반은 종이접기와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작품을 내놓았고, 한식요리반은 한국의 맛이 나는 부대찌개와 주먹밥을 요리해 대접했으며, K-Pop 댄스반은 아이돌 못지않은 춤 실력으로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수료식을 마치자 그간 학생들과 함께한 노력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흥분과 아쉬움이 한데 섞여 학생들과 열싸안고 웃음과 눈물이 섞여 포용한 기억이 남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1기 한국문화아카데미 덕분에 그다음 학기에는 규모가 더 커져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기 또한 많은 사람이 수강했고, 수료식에는 총장이 참석해 학교 행사로 거듭나는 영광을 누렸죠. 특히 한국문화아카데미 2기에 개설한 부채춤반은 부채춤 동아리로 연결돼 교내외 여러 행사에서 공연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도록 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꾸준히 이어나갈 작은 바람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원 파견 기간은 최장 3년, 저는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라면 제가 없어도 학생들이 주도해 한국문화아카데미를 계속 이어나가고 동아리 활동도 한국어교육학과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곳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일하면서 조금은 느리지만 결국 말은 임무를 완수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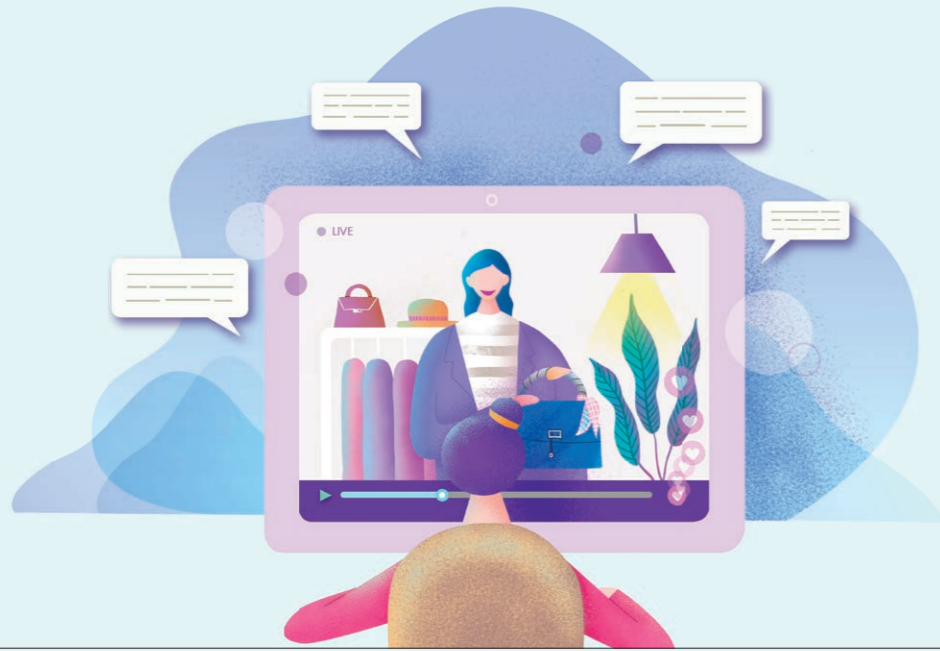
그들 스스로 잘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느꼈죠. 이제 마음 놓고 그들에게 맡겨볼 작정입니다.

남은 기간 저는 조력자로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한국어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발판 삼아 파라과이를 넘어 남미 곳곳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약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조현경 국립국제교육원 해외파견교사**  
특별함이라고는 없는 파라과이의 일상에서 한국 문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활기를 불어넣은 진취적인 한국어 교사. 올바른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확산되는 것과 더불어 지속 발전 가능한 한국어 교육을 꿈꾸며 한 발 더 나아가 준비를 하고 있다.





## 욕망의 세포를 정밀하게 찢러라, 1인 마켓이 부상하는 이유

미국 플로리다의 벤저민 카펠루시닉은 중학생 시절 엄마가 사준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다가 아이들에게 큰 부러움을 샀다. 이후 운동화수집에 재미를 느끼고 친구들에게 자기 신발을 되파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르브론 XMVP 농구화를 400달러에 사서 4000달러에 판 것을 계기로 취미가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장하고 있던 운동화를 팔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유명 힙합 뮤지션이 보내온 전용 비행기를 타고 운동화를 배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0대의 나이에 '킵스(Kickz)'라는 별명의 스타 마케터가 되었다.

이제 한국에도 그 못지않은 1인 마켓 스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느 패션니스타는 인스타그램에 수십 만의 팔로어를 거느리며 자신이 입은 옷, 바르는 화장품, 손에 든 가방을 판다. 사람들은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망하고 그의 안목을

믿고 따른다. 기업들은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며 최신 상품을 먼저 써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한다. 그녀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이들은 다시 SNS에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리며 입소문 전파에 앞장선다.

어느 직장인은 주말을 이용해 상품을 개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다. 처음에는 물건 사는 걸 워낙 좋아해 시작했는데, 점차 제품을 언패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에 재미를 느꼈다. 그런데 그의 솔직한 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투잡에 뛰어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유아용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자 해외 직구를 이용하다 아예 직접 판매자로 나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소비자이면서 판매자인 이들을 '셀슈머(seller+consumer)'라고 부른다.



“지갑을 열려면 가게가 커야지.” 전통적인 시장 논리다. 초대형 건물에 온갖 상품을 채워놓은 백화점과 대형 마트, 전자 제품은 물론 생활 소품까지 모아놓은 가전 상가, 신선한 청과물에서 포목과 철물까지 다루는 종합 시장, 이 모두를 아우르며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등 압도적인 규모로 덩비는 장사꾼을 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고객은 다르다. 코끼리 같은 메가마켓을 무시하고 깨알보다 작은 가게에 몰려들고 있다. 세포 마켓(Cell Market)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1인 마켓이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유명 스타를 동원한 초대형 광고로 상품을 팔던 기업도 이들의 판매고에 놀라고 있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TV나 포털 사이트의 광고에 노출되는 상품을 무비판적으로 선택하던 시기는 지났다. 이들은 꼼꼼하게 가성비를 따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가심비를 중요시 여기는 세대다. 자신의 취향과 비슷하면서 제품에 대해 솔직히 판단해줄 누군가가 운영하는 작은 쇼핑몰에 더 큰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수없이 쏟아지는 상품과 정보 속에서 나 대신 판단해줄 사람을 정해놓고 두뇌의 피로를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다. 여대 앞이나 쇼핑 거리에 있는 작은 옷가게나 편집숍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지역적 한계가 뚜렷해 조금 잘나가더라도 동네 장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SNS의 거미줄이 넓게 퍼지고, 이를 통해 취향의 패턴이 분류되고, 빠른 택배 서비스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자 게임이 달라졌다. 인터넷 쇼핑몰은 애플리케이션이 쉽게 가게를 차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페이스북 등의 SNS는 소규모 잠재 고객에게 적은 금액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누구든 목 좋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비싼 월세 걱정을 하고, 재고 처분에 고민하지 않고도 곧바로 판매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이들이 손쉬운 창업 혹은 부업 형태로 1인 마켓에 뛰어들고 있다.

기업들 역시 이들을 구멍가게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사 마케터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고액의 광고료를 지불해도 올리지 못하던 판매고를 몇몇 유명 크리에이터

들이 이뤄내는 것을 보며 놀란 것이다. 특히 뷰티 인플루언서, 먹방 스타, 유아용품 관련 크리에이터의 막강한 대중 장악력을 깨닫고, 이들과 함께 협업 상품을 개발해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물론 1인 마켓의 간판을 건다고 누구나 대박을 내는 것은 아니다. 개미의 한계는 있다. 몇몇 여왕개미의 번쩍이는 성공을 모두가 따라 할 수는 없다.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켓을 열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어 눈에 띄지 않는 가게는 곧바로 사라지고 만다. 낮은 가격과 이벤트로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놓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제때 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 역시 1인 마켓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다. 과거 '파워 블로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티즌의 신뢰를 등에 업고 '공동구매'를 통해 승승장구하다가 급속히 변질된 경험 등 지금 맹렬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터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나 루머로 신뢰를 잃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취향이란 작은 세포처럼 섬세하다. 최근에는 그런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마켓의 세분화는 이런 변화를 맞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1인 마켓은 현 단계에 어느 정도 유효하게 시장 상황에 조응하는 형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막대한 개인 정보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초대형 마켓이 또 다른 전략으로 이 전장에 달려들 수도 있다. 개미와 고래의 대결, 소비자를 잡기 위한 게임은 더욱 흥미로워질 듯하다.

# 종이 위 소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분 좋은 종이 한 장'

읽는 것만으로도 바스락바스락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온다. '기분 좋은 종이 한 장' 동아리는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 및 신안군 압해권역(압해, 증도, 지도, 임자) 학교 행정실 교육행정 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행정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와 이야기를 종이 위에 시와 그림으로 녹여 지역 학교 행정실에 유·무형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들. '기분 좋은 종이 한 장'을 만나기 위해 멀리 전남 목포와 신안까지 달려갈 이유는 너무나 충분했다. 글이아도 정수희 사진 한상무 장소제공 평화다방







**종이 위에 업무를 그린다, 소통을 적다**

행정실 직원들이 그림을 그린다. 글을 쓴다. 자신들이 만든 종이책을 들고 직접 발로 뛰며 홍보를 하고 필요한 곳을 찾아가 강의도 한다. 학교 행정실이란 얼마나 바쁜 곳인가.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언제나 요청받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직원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기분 좋은 종이 한 장’을 이끌고 있는 임종현 회장이 이 같은 궁금증에 밝게 웃는다. 이미 이런 질문과 호기심은 무수하게 받아왔을 터, 준비된 자의 여유로운 웃음이다.

“우리 동아리는 신안교육청 산하 학교 행정실 직원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신안교육청 산하 학습 동아리로 총 15명이 함께하고 있지요. 각자의 재능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디자인을 하며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종이 한 장’이 탄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 업무 노하우를 나누는 지식과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 둘째, 선후배 간 공감과 소통의 장, 마지막으로 협력과 열정의 장. 이 모든 것을 ‘종이 한 장’ 위에 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동아리를 만든 이유는 명확하다. 신규 직원이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교과서적 방법이 아닌, 선배 직원들의 경

험을 살려 자신만의 노하우를 재미있고 인상 깊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결국 동아리의 근간에는 행정실 선후배 간 소통과 교감, 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담겨 있는 셈이다.

**봄처럼 기분 좋은 우리 동아리**

그래서일까? ‘기분 좋은 종이 한 장’ 회원들은 밝고 따스하다. 경력에 따라 직급은 다르지만 이를 뛰어넘는 공감대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봄벌처럼 기분 좋게 풍겨나는 것이다.

“신안 지역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 가깝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요. 가까운 섬끼리 뭉치다 보니 우리가 모인 겁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회원들의 장점을 워낙 잘 알고 있어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권숙자 신안교육지원청 주무관이 처음부터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밝히며 환하게 웃는다.

지난 1년 간 ‘기분 좋은 종이 한 장’이 보여준 활약상은 놀랍다. 전남교육신문에 행정실 업무, 결재 관련, 급여, 예산, 품의, 안전관리, 세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연재해 일선 행정 직원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신규 교육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 동

“아름다운 소통을 위해 패러디 시를 적고 그림을 통해 행정실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며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짧은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겠다.”



아리의 작품을 교재로 쓴 것. 이뿐이 아니다. “전남교육연수원에서 8~9급 교육행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회계강의를 했어요. 교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죠. 우리 동아리 그림을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를 좀 더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현숙 신안증도중 주무관의 말에 회원들 얼굴에 보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난다.

**소통을 날줄로, 열정을 씨줄로 달린다**

‘기분 좋은 종이 한 장’ 회원들에게 종이 한 장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수단이자 매개체이다. “종이 한 장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동아리 회원들은 “아름다운 소통을 위해 패러디 시를 적고, 그림을 통해 행정실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며,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짧은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답변을 내놓는 것도 바로 종이 한 장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의 기본은 듣는 것이라며, 임용 2년 이내 신규 직원들의 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동아리가 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고 다른 학교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기도 했어요. 고된 업무를 위로받고 공감했다고요. 감동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큰 힘을 얻었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도 느꼈고요.”

김지희 신안교육지원청 주무관이 그날의 소중한 추억을 꺼내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에게 열정이란 ‘조변석개(朝變夕改)’ ‘다다익선(多多益善)’ ‘부상투혼(負傷鬪魂)’ ‘희희낙락(喜喜樂樂)’입니다.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그리고 또 그리며, 감기에 걸려 콧물이 줄줄 흘러도 휴지로 틀어막고 작업을 완성했어요.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노래하고 시 낭송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앞으로 ‘교학상장(敎學相長)’ ‘학이시습(學而時習)’ ‘재능기부(才能寄附)’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과 지역 교육에 이바지하는 꿈도 꾸고 있어요.”

지난해 첫 발령을 받아 올해 2년 차 신규 직원인 기승혜 압해동초 주무관과 전수현 압해초 주무관의 말에서 다짐과 포부가 느껴진다. 지난 1년 동안 ‘기분 좋은 종이 한 장’으로 행정 업무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아낌을 배웠다는 두 사람. 소통을 배움으로서 꿈으로 성장하는 순간이었다.

그림과 시, 공감의 글이 적힌 ‘기분 좋은 종이 한 장’이 행정실 직원들의 손에 들려 팔락거린다. 스치면 파란 물감이 묻어날 것 같은 종이, 이 종이 한 장 덕분에 업무가 쉬워졌다. 후배는 선배의 입장을 이해하고, 선배는 신입 시절의 초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적의 종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이라는 반석 위에 행복을 곱게 접어 사방으로 날려 보내는 근사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 일상 속 미세먼지 해방 아이템

불청객 미세먼지로 전국이 공공 앓고 있다. 연일 울리는 미세먼지 긴급재난문자는 친숙한 지 오래다. 미세먼지의 기세로 겨울철 한반도의 기후특성인 '삼한사온(三寒四溫)'을 빚대 만든 말인 '삼한사미(三寒四微;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도 이제는 '일한사미' '일한오미'로 바뀌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만을 가야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지금,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 스스로라도 예방하여 미세먼지 피해를 줄여보자.

글 엄용선 일러스트 청운



## 기본 중의 기본,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분진용 특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10미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7) 이하다. 게다가 초미세먼지는 2.5미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30) 이하. 이렇게 작은 입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마스크에도 특수한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마스크의 필터링 기능은 KF80 이하, KF94, KF95, KF98 등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미세한 입자를 걸러내며 이와 더불어 식약청 허가, 의약외품 마크를 꼭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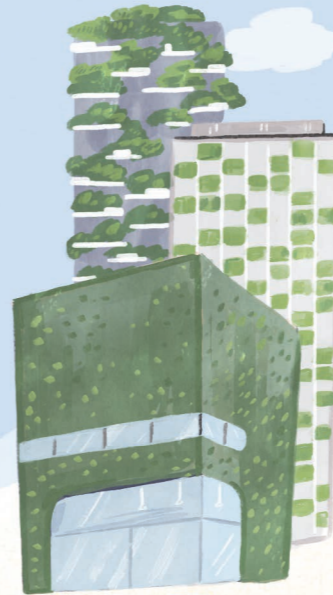
또한 실내에서는 필히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아무리 문을 공공 닫고 있다 해도 미세먼지 유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법.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실내 공기를 포집해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는 필수다.



## 인테리어 효과는 덤 미세먼지 정화식물

공기정화식물로 유명한 스투키.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밤에는 산소와 음이온을 함께 배출하는 CAM 식물로 실내에 퍼져 있는 좋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거해준다. 뾰족한 끝, 곧게 뻗은 잎 모양은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며, 물을 좋아하지 않는 특성상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열대식물이라 15°C 이상에서 키우는 것이 좋으며, 해가 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 좋다.

산세베리아도 음이온을 생성한다. 실내 공기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특히 새집에서 나오는 107가지 오염 물질 제거에 효과적이다. 집들이 선물로 산세베리아를 선택하는 이유이다. 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되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그 외 아이비, 이레카야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관엽식물이 음이온을 방출,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하다.



##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형 도시건축 벽면녹화 기술

식물이 환경, 특히 공기질 개선에 탁월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건축에 있어 이에 착안한 미세먼지 방지 공법으로는 벽면녹화를 들 수 있다. 이때 핵심은 탄산코르크다. 이를 활용해 벽에 식물을 심는 키트를 만드는 데, 일반 코르크에 비해 탈취력이 우수한 탄산코르크는 세균 감소는 물론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겨울철 원활한 물 공급을 가능하게 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준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 매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벽면녹화 건물이다. 건물 전체로 푸른 공기정화 식물이 뒤덮고 있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싱그럽다. 최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아파트 저층부 벽면녹화 사업은 물론, 고층부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 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아파트 주변에 조성되는 녹지에는 수림커튼, 미세먼지 저감숲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라니 더욱 기대가 된다.

## 미세먼지 제로에 도전하는 카페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스타벅스,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설을 갖춘 커피랑도서관 등. 날로 거세지는 미세먼지의 위협에 대형 상업공간과 식음료 시설 또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신촌대리점과 홍대공항공철도역점을 시작으로 전국 1140여 개 점포에 천장 매립형 공기정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도서관형 카페인 커피랑도서관 또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설을 갖춰 방문객들에게 상쾌한 공기를 선사한다. 물 분사를 통한 응집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방식, 이와 함께 정전기를 이용한 집진 과정은 미세먼지를 흡착, 차단해 다시 한번 걸러낸다. 실제로 정전기는 미세먼지 차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흔히 쓰는 KF인증 마스크에도 정전기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 인체에 유해한 요소로부터 해방된 공간, 고무나무 등 미세먼지 정화식물은 물론 공기질 정화와 관련한 제품까지 미세먼지 해방에 대한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



## 현대인의 필수 어플 미세먼지를 체크

재앙 같은 미세먼지. 미리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 앱이다. 이는 실행과 동시에 내 위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등의 직관적 표정 아이콘은 물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5분마다 갱신되는 정보는 알람 기능까지 갖춰 장시간 외부 활동 시 특히 유용하다. 기온, 습도 등 날씨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는 앱도 있다. 대기오염에 관한 의학적 발견이나 속보, 오염된 공기 속에서의 생활 팁 등 교육 정보도 풍부하다. 기상 예보처럼 미세먼지 예상 수치를 제공하는 앱, 동·읍·면 단위의 세분화된 지역 구분은 더욱 실질적인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싸움도 백전백승. 생활 속 유용한 미세먼지 앱(미세미세, 에어비주얼, 원기날씨, 카이 등)으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거يرو 승자가 되어보자.



# 우에노, 모두의 모든 걸음을 믿으며

아버지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달랐다. 그때 그들이 살았던 일본 도쿄 우에노(上野)의 히로에라과 오늘 우에노의 명암 역시 다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이 첨단(尖端)의 도시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며, 저마다 모두 한 걸음씩 더 깊은 자기 자신에 다가가고 있다는 진실이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外



일본 도쿄, 그중에서 다이토구(台東区)에 위치한 우에노(上野) 지역은 우에노역(驛)을 중심으로 조성된 변화다. 에도시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 1885년 사통팔달 역사(驛舎)가 들어서며 본격 성장했다. 현재는 주택가와 산업지대, 일본 최대 공원과 도쿄 유일의 재래시장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팔색조 매력을 지닌 곳이 되었다.

**저녁마다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

금요일 밤, 한 주의 근무를 모두 마친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주변에 홀로 사는 학생과 동네 어르신, 장사꾼들까지 합세한다.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이 회합하는 북새통. 술집마다 문을 열고, 거리를 밀어 의자를 냈다. 콕콕 눌러 채운 술잔을 부딪치고 한바탕 박장대소가 일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정성 있는 삶의 위로가 아닌가? 아메요코(アメ横) 시장의 풍경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국민의 삶은 피폐했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사고팔아야 했다. 아메요코는 그 시기에 생겨난 암시장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른 장터들은 시간이 흐르며 모두 흩어져버렸다. 편하고 저렴한 마트가 들어서고, 그사이 재래시장 같은 건 필요 없는 게 되어버렸으니까. 오직 아메요코 시장만 살아남았다. 약착같이 살아남아 이제는 500개 이상의 가게가 성업 중인, 일본에서도 가장 번듯한 시장이 되었다.

**다르고 같은 꿈**

선술집 구석에 자리를 잡고 청주 한 병을 시켰다. 옆 테이블에는 넥타이 부대가 앉았다. 대각선 끝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띈다. 옛된 얼굴의 막내. 있는 힘껏 술을 받아 마시고 있었다. 이미 취기가 잔뜩 오른 청년의 얼굴이 귀까지 더 빨갱게 달아오른다. 나는 힐끔힐끔 그의 최선(最善)을 오래 들여다봤다.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그가



- 1. 우에노의 도심 전경.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 2. 매일 저녁 아메요코 시장 선술집은 우에노에서 꿈을 좇는 직장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 3, 4. 아메요코 시장은 도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이다.

안쓰럽게도 느껴졌다. 어제 저리 부대끼는 술잔인가. 어쩔 저리 열심의 삶인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고도성장기였다. 이곳 우에노 지역은 그 발전기에 성공을 꿈꾸며 도쿄라는 기회의 땅에 상경한 사람들이 첫발을 내딛던 곳이다. 그러나 도시의 삶은 만만치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적응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빈민가를 이뤘다. 새벽부터 다시 새벽까지 몸이 부서지라 일했다. 상관없었다. 약착같이 버텨야 했으니. 그래서 도쿄에, 꿈의 도시에 뿌리를 박아야 했으니.

오늘 우에노의 선술집에 모인 사람들. 어떤 의미로 이들은 농 짙은 역사 끝에 자신을 믿고 또 믿어 살아남은 자들이다. 혹은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이들이다. 역사의 격변기에 도시 한복판에 뿌리를 박고 생을 틔운 것은 오래된 시장만이 아닌 썸이다.

**소원의담**

매년 겨울 10만 마리 철새가 날아든다는 시노바즈 연

못(不忍池) 가장자리에는 팔각정의 사당 시노바즈노이케벤텐도(不忍池弁天堂)가 있다. 일본에서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일곱 신 중 음악과 예술을 주관하는 변재천(辨財天)을 기리는 신당이다.

푸른 연잎 사이 짧은 다리를 지나 신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저마다 콕콕 눌러 적어 넣은 염원의 글귀가 신에게 읽히기를 기다리며 가장 먼저 여행자를 맞는다. 일본어를 잘 모르니 간혹 보이는 영어 글귀에 먼저 눈이 간다. 대체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만날 수 없는 이를 그리는 문장들이다.

그중 내 시선이 멈춘 곳에 걸려 있는 소원 하나는 어머니를 만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깨를 다친 동생이 다시 야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따뜻하고 무결했다. 그러고 보니 저들이 빌고, 기다리고, 애타는 희망이란, 내일이란, 삶의 기회란 그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 10억을 가진 부자가 20억을 갖게 해달라고 적어둔 소원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친구의 안녕, 돌

무대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연습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일 테니까. 당신과 내가 모두 한 걸음씩 더 깊은 삶의 내면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 적어도 내 가슴과 내 발의 힘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

아간 이의 명복 같은 염원은 세속의 욕심이 아니라 가장 순하고 온유한 바람이었다.

**원숭이 사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쿄에서 가장 자랑하고픈 공원이 어디냐 물으면 열 중 아홉은 우에노온시 공원(上野恩賜公園)이라 답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동물원,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 온갖 문화 시설이 들어서 있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길게 이어지는 공원의 길목마다 무예가, 악사, 춤꾼이 무대를 열고 실력을 뽐낸다.

오늘도 우에노 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들을 부르며 수많은 무대도 열렸다. 그중에 원숭이 가면을 쓰고 칼과 창을 휘두르며 무술 시범을 보이는 사내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었다. 와! 와와! 공중돌기를 하고, 양손에 칼을 든 동료와 서로 합을 맞추며 무예 실력을 겨룰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마침내 공연이 끝나고, 관객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넨 후 무대 뒤로 돌아 나온 그가 가면을 벗는 게 보였다. 남자의 얼굴은 의외로 상당히 어려 보였는데, 이마부터 목까지 잔뜩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라? 그의 눈이 붉게 젖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나를, 당신은 당신을 믿겠다**

가면 뒤에서 울고 있는 무예가라니! 왜 우는지 쫓아가서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궁금한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혹시 오늘이 첫 공연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공연이었나, 실수 때문일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 가슴이 벽쳤다. 나는 이수



- 5. 봄을 맞아 초록이 깊은 우에노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
- 6. 시노바즈노이케의 팔각정 사당 시노바즈노이케벤덴도를 찾는 사람들
- 7, 8. 일본 최대 규모의 우에노 공원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와 무예가들.
- 9. 푸른 연잎의 시노바즈노이케 건너편에 팔각정의 변재천 사당이 보인다.



수끼끼를 끝내 풀지 못했다. 그러나 틀림없이 짐작할 수 있는 점도 몇 가지 있다. 이를테면, 그는 세상 누구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일 것이다. 조명과 좋은 시설이 없는 거리의 공연. 이런 낯선 그대로의 무대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연습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일 테니까. 그는 복숭아 씨앗이나 호두 껍데기처럼 단단한 확신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 도시의 무엇이 우리를 불러들었나. 당신을, 당신의 아버지를 치열한 실패와 성공의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세웠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회, 희망, 바람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 이곳에 모여 잠시 시장의 소란을, 공원의 꽃잎을 즐기다 이내 내일을 따라 다른 길로 흩어질 것이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 줄 누군들 알고 있을까.

그래도 분명한 게 하나는 있다. 당신과 내가 모두 한 걸음씩 더 깊은 삶의 내면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 적어도 내 가슴과 내 발의 힘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들이 길 끝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에노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우에노는 여러 철도 노선과 도로가 밀집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도쿄나 교외 지역 어디에서든 접근하기 좋습니다. 특히 우에노온시 공원에는 우에노 동물원, 도쿄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국립서양미술관, 도쿄도 미술관, 도쿄 예술대학은 물론 시노바즈노이케 신사 등 수많은 시설이 자리해 여행하기에 반나절도 모자랍니다. 체력이 좋다면 우에노 공원을 시작으로 시타마치 민간 신앙 분당이자 전통 쇼핑 거리인 센소지(淺草寺)까지 도보로 관광할 수 있습니다. 아메요코 시장은 낮에도 좋지만 특히 밤 경경을 추천합니다. 가게의 야외 테이블까지 근처 직장인이 들어찬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Chilean desert, 2015 ©Oamul Lu



Solitude, 2012 ©Juliette Binet

내가 보고 느끼고 바라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떤 이들은 한 장의 그림 속에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낸다. 글이 없던 시절, 그림은 가장 유용한 표현 수단이었다. 꼭 펜이나 붓으로만 그릴 필요는 없다. 서울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열리는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이하 I draw)>는 '그린다'는 것의 정의를 새롭게 한다. 클라작 사진 디뮤지엄



**전시 정보**  
**I draw**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기간** ~2019년 9월 1일(일)  
**장소** 디뮤지엄  
**관람료** 성인 12,000원  
 학생 5,000원  
 어린이 3,000원

**그림에 관한 16인의 정의**

어쩌면 지금까지 '그림'을 오해했는지 모른다. 흔히 말하는 '멋진 그림'이 미술사에 등장하는 화가의 전유물은 아니란 걸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어릴 적 우리는 그 누구의 잣대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가장 독창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였다. 그릴 수 있는 곳이라면 벽이든 바닥이든 상관하지 않았고, 바닷가의 모래만으로도 제법 훌륭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림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전만 해도.

1 Blind Love(Kristelle Rodeia), 2019, courtesy of D MUSEUM  
 2 Magnifying Glass(Katie Scott), 2019, courtesy of D MUSEUM



<I draw>는 특정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린다'는 개념에 집중하고 있는 전시다. 그림이 무엇인지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저 16명 아티스트의 방식을 그리고, 그 결과물을 경험하기만 하면 된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저마다 다른 것을 느끼듯이, 독창적인 작업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16인의 작가가 자신만의 시선과 방식으로 세상과 내면을 표현했다. 나와 달라 흥미롭고, 내 마음과 비슷하게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기법과 소재로 풀어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

13개의 섹션으로 나뉜 전시 공간은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을 넘어갈 때마다 달라지는 분위기에 하루 만에 여러 전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각 작품의 주제 의식이나 표현 방법도 다채롭다. 디테일을 생각해 상대적으로 형태와 표정을 극대화한 드로잉이나 몇 가지 제한된 소재와 특정 기법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해가는 작가, 지면을 꽉 채우는 화려한 색감과 표현으로 시선을 끄는 작품 등을 보며 각자의 관심사와 취향을 파악해볼 수도 있다.

'그린다'는 개념의 확장은 원본과 복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도 나타난다.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이도 있지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디지털 작업물도 적지 않다. 발달하는 기술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지만, 동시에 기존에 통용되던 원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한다.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섹션도 있지만, 대부분 전시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보는 즐거움을 넘어 경험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전시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또 하나의 SNS 전시일 거라고 짐작했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가벼움이 우리에게 그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닐는지 생각해본다. 전시의 마지막 섹션인 줄리에트 비네의 작품을 보며 문득 그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같은 그림 앞에서 어른은 모자를 보고, 아이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본다. 사실 중요한 것은 유려한 그림 솜씨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나 자신조차 내일부터는 지금까지보다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 나만의 일기장을 채우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현대백화점 판교점 Office H, 5F  
031-5170-3700



공간(空間).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여기에는 비움과 채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독특한 특성은 곧 사람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발길을 따라 간 곳은 그림책이 있는 미술관.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글 김영주 사진 한상무





### 책, 어린이 그리고 미술관

오전 10시, 공간 안으로 들어온 채광에 그림책이 반짝 빛난다. 전시를 알리는 빨간색 포스터가 눈에 띈다. 이곳은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하 MOKA)으로 국내 최초 책을 주제로 만든 미술관이다. 어린이의 때 묻지 않은 상상력을 맘껏 키우고자 예술과 문화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 공간을 만들어 매번 다른 전시를 기획한다.

진행 중인 <작은 시민들> 전시에서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회(IBBY)가 추천하는 61개 나라의 대표 그림책과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와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그림책이 하나의 예술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며 미처 만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한다. 그렇게 시간과 함께 자란다. 미술관은 그 길을 제공하고 있었다.

<작은 시민들>은 3월 3일 막을 내렸지만, 이곳에서 마지막이란 단어는 무색하다. 이미 <MOKA Triangle 트라이앵글>이라는 다음 전시로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참여하며 예술을 더 즐겁게

경험한다는 이 전시의 이야기에 어느 누가 설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른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의 변화를, 어린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험을 선물한다. 아직 세상의 고정관념에 무너지지 않은 어린이를 위해 그들이 바라본 예술과 문학은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했다.

### 이야기로 채우는 공간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오는 가족들. 미술관 1층에는 한번에 눈을 사로잡는 빨간색 미니버스와 알록달록한 의자가 있었다. 까르르. 일반 미술관과 달리 조금 크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 반가웠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미술관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 이곳만의 소리를 만들었다.

MOKA 설계를 맡은 더 시스템 랩의 건축가 김찬중 씨는 아이와 부모, 즉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미술관의 새로운 공간 유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1층의 다채로운 공간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려면 비눗방울 모양의 계단을 징검다리처럼 건너



야 한다.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놓았다. 삶에 있어 '하나의 여정'으로서 미술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건축가의 말이 새삼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미술관 2층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더불어 어른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그 소리가 시작되는 곳을 따라가 보면 '열린 서재'가 나타난다. 열린 서재는 독서의 숲처럼 꾸며져 있는데, 숲 사이에서 요정들이 노래를 불러주듯 부모가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해 보여주고, 들려주었다. 열린 서재에 진열된 6000여 권의 책 가운데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고르고 부모와 함께 찾아보기도 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어린이들은 이 공간 안에서 오늘의 일기장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

### 아이와 함께 따로 또 같이

미술관 곳곳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와 색칠 도구가 비치되어 있었다. 전시실에 꾸며져 있는 미술작품을 보며 곧바로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부모에게 수줍게 내밀자 그것을 본 부모는 아낌없이 호응한다. 그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곳이 특이한 점은 어린이를 위해 만들었지만 그 영향력이 어른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것이다.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 미술관을 지키는 직원 등 대다수 어른은 바쁜 일상생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만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보여주는 글과 그림을 보면서 함께 웃는다. 저 멀리 보지 못한 나의 이야기를 그려리는 것처럼 말이다.



The-K은빛동행 앙코르 청춘아카데미

# 더 행복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14일까지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0플러스와 협력해 퇴직회원들의 더욱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앙코르 청춘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부산에서 시작해 대전, 서울 마포, 은평, 구로로 이어진 앙코르 청춘아카데미는 이론 교육은 물론 실질적으로 사회공헌이나 일자리 탐색 등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참석한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그중 3월 8일에 열린 서울50플러스중부캠퍼스로 향했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 은빛동행 퇴직회원을 위한 시간

서울 마포구의 언덕에 위치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이하 50플러스 캠퍼스)는 도착하기가 만만치 않다. 숨찬 언덕길을 올라가야 만나는 새로운 세상. 강의 시작부터 교직원공제회 퇴직회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길이다. 오늘 강의에 참석한 교직원공제회 퇴직회원의 수는 총 50명으로 문화라운지와 컬처&JOY 등 문화예술 행사와 달리 신청자 1인만 참여가 가능했다. 그랬기에 정말로 꼭 원하는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전 10시를 살짝 넘은 시간, 먼저 김정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기획팀 PM이 단상에 섰다. 김정아 PM은 올해 처음 교직원공제회와 재단이 합작해 만든 커리큘럼을 위한 방문에 환영하는 인사를 하며 압도적인 여성 회원 사이에 간간이 섞여 있는 남성 회원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해 잔잔한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어서 신동현 한국교직원공제회 고객지원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신동현 팀장은 "그동안 힐링 투어, 콘서트 등 문화복지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올해는 퇴직회원만을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모셨다"라고 밝히며 하루 일정이지만 참여 회원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회원을 위해 노력하는 공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에 참석자 모두가 반가움과 고마움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에는 참석자 전원이 자기소개를 할 시간이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회원들도 한두 명이 물꼬를 트자 이내 편안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퇴직한 지 1~2년 된 회원, 교사로 은퇴한 회원의 수가 많았다. 은퇴 이후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유머러스하게 토로한 회원들 덕분에 웃음이 터지기도 여러 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다.

### 앙코르 커리어, 앙코르 마이 라이프

50플러스재단의 활약 영상을 간단히 본 뒤 고선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사업본부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고선주 본부장은 "명퇴는 개인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큰 변화이며, 명퇴에는 가족 모두의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재단은 이를 돕는 기관"임을 밝혔다. "대우받는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 산업화-경제화-민주화를 만들어낸 성공을 경험한 세대로서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에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일자리 찾기, 상담 등을 소개해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일본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중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넷째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했더라면,**  
**셋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둘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신창용 이사는 은퇴 후에는 사회 활동, 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취미와 재능을 일자리로 전환, 사회적 기업에 재취업, 공유경제에 기여 등 다양한 사례에 모든 회원이 더욱 집중했다.  
 “예전에 그 많던 소매치기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들도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물며 소매치기도 변화하는데, 우리는 변화를 거부한 채 착각 속에서 불평만 해서는 안 되죠.”

폭소와 동시에 분위기가 엄숙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앙코르 커리어를 위해 꿈과 목표 설정, 역량 확보, 변화 대응, 차별화를 주문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상속 설계, 자산 관리, 좀 더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해**  
 두 번째 특강은 최재천 변호사의 ‘인생의 마지막 설계, 지혜로운 상속설계 이야기’다. 유쾌하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한 최재천 변호사는 그답게 호탕한 목소리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곁들인 강의로 회원들을 즐겁게 했다.  
 그는 먼저 인생의 마지막 설계는 ‘상속 설계’라며 상속 설계 시계명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 당장 시작할 것’ ‘회고록 등 삶을 기록할 것’ ‘재산 관계를 수시로 정리할 것’ ‘사회적 기부에 대한 설계를 할 것’ ‘연명 치료, 장례 절차 등에 관해 결정할 것’ 등 속사포처럼 쏟아놓는 그의 말에 모두가 메모를 해가며 매우 진지하게 경청했다. 강의 중간에 유언장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회원, 머뭇거리며 제대

이어진 시간은 50플러스캠퍼스 투어이다. 2개 조로 나눠 이동한 회원들은 안내에 따라 상담실, 강의실, 교육장, 50플러스의 서재, 요리실습실, 목공방 등을 차근차근 둘러보며 이곳에서 하는 일과 강의 등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 교직원공제회 측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오후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오후의 첫 번째 강의는 ‘인생 후반전, 앙코르 커리어: 일과 삶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강연자는 신창용 앙코르 브라보노 협동조합 이사이다. 현역 시절 대기업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공공 분야와 금융 분야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는 먼저 2013년 퇴직한 이후 앙코르 커리어의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에는 세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불안하다’ ‘일하고 싶다’ ‘갈 곳이 없다’. 명함이 없어지니까 불편해집니다. 자꾸 날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다 옛날 얘기에요. 결국 남들은 날 ‘꼰대’라고 부르죠.”

로 쓰지 못하는 회원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  
 “일본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중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넷째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했더라면, 셋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둘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모두가 숙연해졌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삶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내 장점을 펼치고, 내 삶을 살 것을 주문했다. “이것이 상속 설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의 마지막 강의는 ‘100세 시대,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를 주제로 강창희 트러스트자산운용연금포럼 대표가 맡았다. 어쩌면 퇴직자들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강창희 대표의 강의는 소위 말하는 팩트 폭격의 연속이었다.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 노후 파산이 남의 일?’ ‘사별·이혼·비혼 등으로 맞는 싱글의 시대’ ‘운이 나쁘면 120세 까지 사는, 퇴직 이후의 삶이 너무 긴 인생’ 등 모두가 내심 불안해하는 부분을 콕콕 집어준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일본과 비교해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기만 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마인드를 불안한 노후를 만드는 주범으로 꼽기도 했다. 자녀 관

련 지출을 줄이고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직업관을 갖게 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뭘까요? 바로 평생 현역입니다. 재취업으로 버는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은 2억 원의 정기에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모두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인 자신에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주식이나 펀드 등을 꼭 짚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며, 저성장·결핍의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약’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 원칙으로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한다’ ‘펀드를 살 때는 수수료를 꼭 물어봐라’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후 6시가 넘어 마침내 강의가 마무리되자 회원들 모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오늘 강의는 참석한 모두에게 족집게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같았다. 중간에 자리를 뜨는 회원 하나 없이 모두가 집중하며 자신을 되돌아본 오늘 강의가 교직원공제회 퇴직회원들에게 더없이 값진 선물이 됐기를 바란다.

MINI INTERVIEW



오현명 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부 과장

The-K은빛동행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50플러스재단과 협업했는데 이를 통해 공제회 퇴직회원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물꼬를 트셨으면 합니다. 사회 공헌 활동,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행사로 퇴직회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장인기 회원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이번 The-K은빛동행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반복이니까 색다른 삶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지요. 강의는 매우 즐겁고 공감할 만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앞으로 봉사에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소연 회원

오늘 강의는 제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 열렬히 신청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내 얘기 같은 꼭 필요한 내용이 많았어요. 50플러스재단과 협업한 이번 강의를 통해 재능기부 쪽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난 다른 선생님들과 인연을 맺은 것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 해주신 교직원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 신규 회원 위한 공제회 이용 가이드

3월 임용 또는 취업의 기쁨과 설렘으로 첫 시작을 맞이하는 신규 회원을 위한 공제회 이용 가이드! 챙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은 때이지만, 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살펴보자.

### 슬기로운 금융 생활의 시작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저축에만 신경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 새내기들은 학자금 상환이나 주거 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수중에 없는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잦다. 하지만 거래 실적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시중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 목돈이 필요한 교직원이라면 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제회 대여 이용 시, 우선 공제회의 모든 대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따라서 대여 기간 중 언제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전액 및 부분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 등급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타 금융기관의 이용 실적과는 상관없이 없다. 마지막으로 장기저축급여 탈퇴(퇴직)가정급여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한다면 SGI서올보증에 가입하고,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자.



### The-K복지누리대여와 일반대여

공제회 대여는 △일반대여 △The-K복지누리대여 △무이자대여 △분할급여대여로 나뉜다. 이 중 무이자대여는 보건의료 또는 재해복구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분할급여대여는 퇴직 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신규 회원이라면 일단 The-K복지누리대여부터 살펴 봐야 한다. 일반대여보다 금리가 낮고(연 2.99%, 변동금리) 최초·출산·결혼·주택마련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두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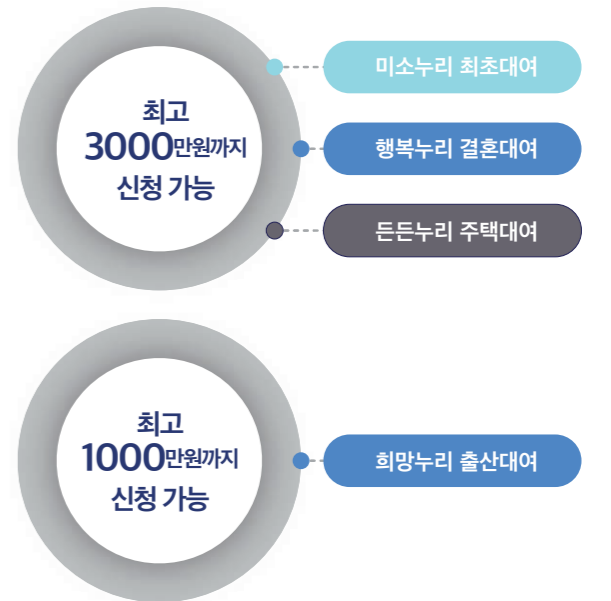
그중에서 가장 먼저 '미소누리 최초대여'를 눈여겨보자. 공제회 가입 후, 공제회에서 처음 대여를 이용할 때 단 한 번만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회원이라면 '행복누리 결혼대여'가 도움될 것이다.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부부 회원의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다면 '희망누리 출산대여'를 이용하자. 출산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입양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고 1000만원까지, 부부 회원의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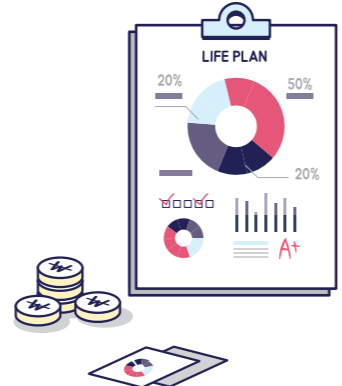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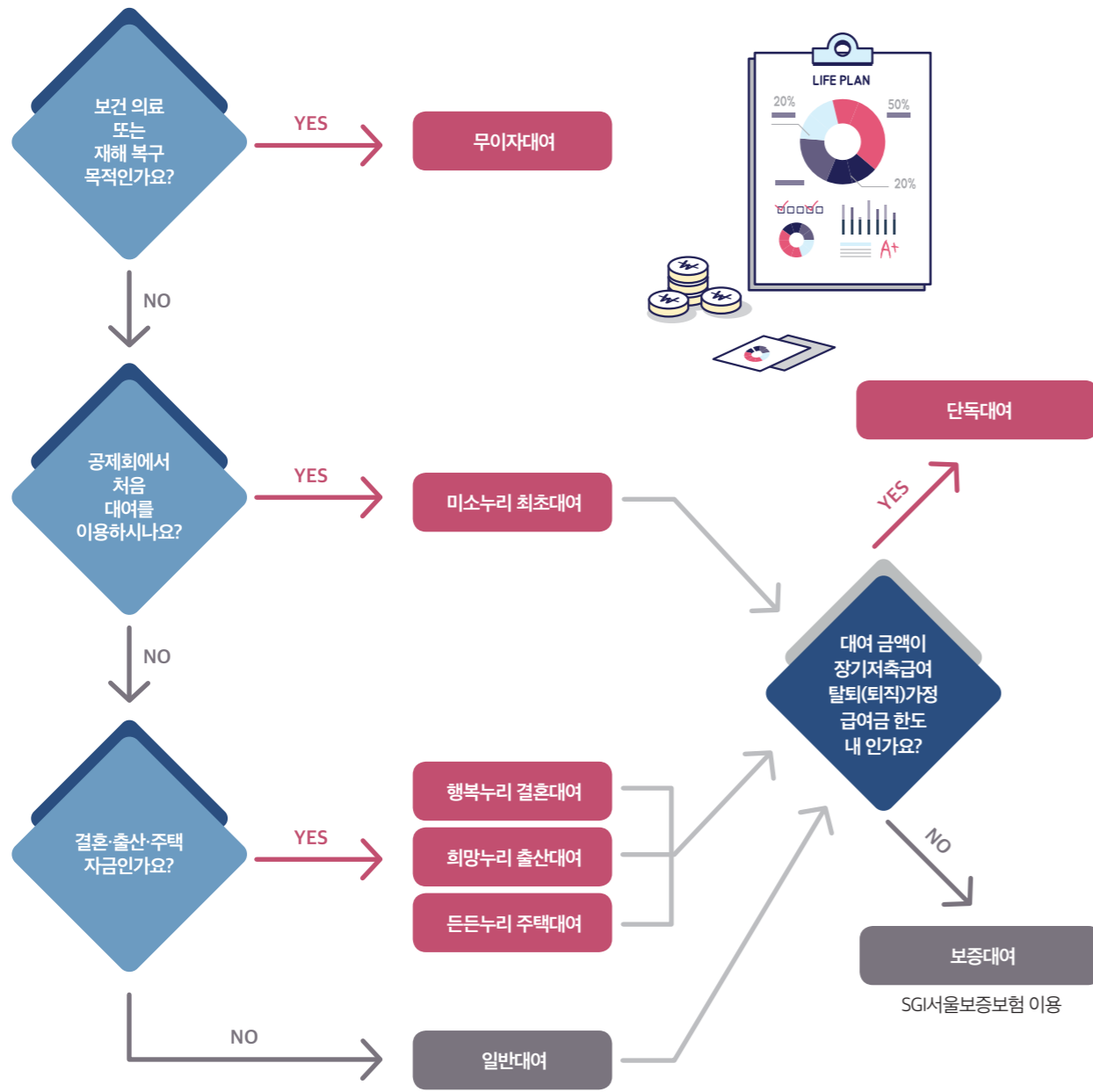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든든누리 주택대여'의 문을 두드리자.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부부 회원의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The-K복지누리대여 외 일반대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퇴직)가정급여금 범위 안에서 바로 대여가 가능하다. 신규 회원의 경우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첫 불입금 납입(급여 공제)이 확인된 다음 날부터 장기저축급여 탈퇴(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연 3.6%(변동금리)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The-K복지누리대여 (연 2.99%, 변동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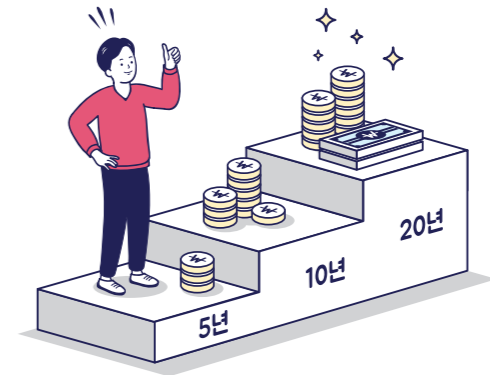


### 공제회 대어를 이용하려면



### 교직원라이프 생명보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다양한 보험에도 가입하기 시작한다. 이때 교직원공제회의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를 눈여겨보자. 보통 보험료에는 가입자의 위험률, 회사사업비 같은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공제회 보험은 이 부분에서 유리해 일반 민영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또한 교직원 전용 위험률을 포함, 교직원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맞춤형 구성도 눈에 띈다.



교직원 라이프



신규 회원 가입 축하기념품



결혼 기념품



출산축하금



복지서비스



이메일 뉴스레터

### 공제회원이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

대어, 보험 등의 금융상품 외에도 공제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도 빼놓지 말자.

우선 회원 자격을 획득과 동시에 가입축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 품목은 헤어드라이어로, 최초 1회 부담금 납부월의 익월 말경 직장 또는 자택으로 택배 발송한다. 결혼을 앞둔 회원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알차다. 광주·대전·경기(수원)·전북(전주) 등 4개 지역 회원 예식장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The-K호텔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결혼기념품도 증정한다. 올해는 냄비 세트, 전기 그릴, 테팔 프라이팬 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 회원이라면 각각 지급한다. 가정을 이룬 회원의 경우 새 생명을 맞이하는 출산의 경사가 있을 터, 이 경우 공제회가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꼭 챙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출산 시(입양 포함) 첫째와 둘째

째 자녀는 10만원을, 셋째 이상 자녀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역시 부부 회원에게는 각각 지급한다.

이 외에도 공제회와 제휴한 병원·장례식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법률·세무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서울·경주·제주·구례·속초의 공제회 5개 직영 호텔을 공제회원 할인가로, 전국 한화·대명 리조트를 법인회원 이용가로, 전국 99개 제휴 리조트·호텔을 할인가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항공 및 골프장, 스파 및 워터파크 등 레저·문화 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제회의 문화복지 행사 The-K행복서비스도 빼놓지 말자. 뮤지컬, 콘서트, 전시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연중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공제회 이메일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최신 소식을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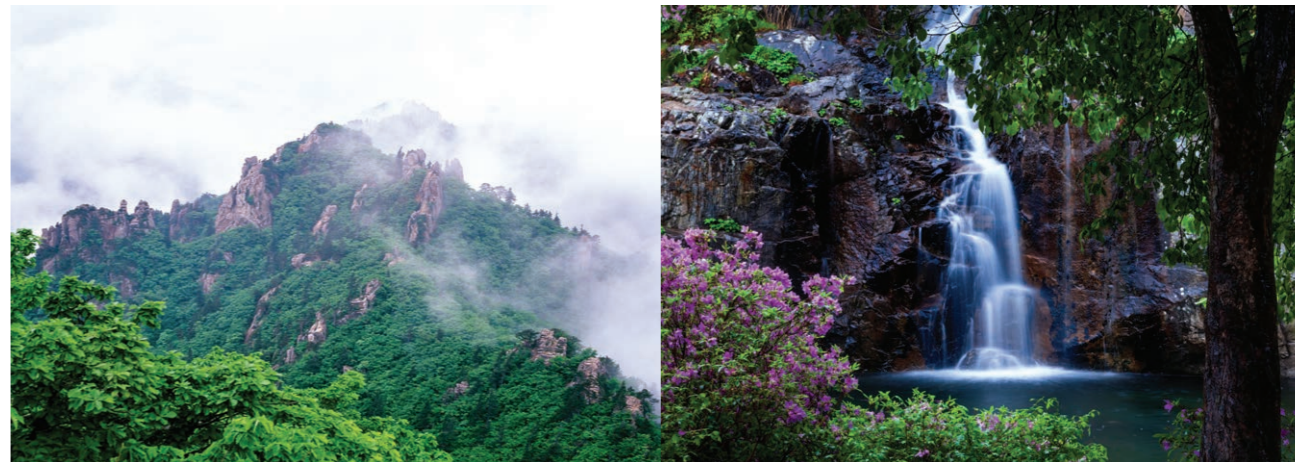
새 단장한

The-K 설악산가족호텔

## 넘실넘실 흐드러진 봄을 따라 설악산에 오르노라

산세가 빼어나고 계곡은 아름답다. 사계절 내내 한 번도 같은 옷을 입지 않은 설악산에는 그래서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물이 좋아 온천을 즐기고, 산이 좋아 기꺼이 만만치 않은 산행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봄, 다시 한번 설악산으로 달려간다.

글 이경희 사진 The-K설악산가족호텔



### 설악산, 봄에 물들다

설악산은 지리산, 한라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 한 번쯤은 가보았을 설악산은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에 걸쳐 있으며, 7000여 개 봉우리가 거대한 산줄기를 타고 제각각의 모양으로 솟아 있다.

봄에는 수백 종류의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이 눈을 밝게 하며, 가을에는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단풍이 수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고, 겨울에는 흰 눈에 덮인 자태가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듯한 웅장함과 고결함을 느끼게 하는 설악산. 늘 그러하듯 올해도 봄은 여지없이 설악산을 찾았다.

올해, 설악산의 봄은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찾아왔다. 아직은 꽃망울이 진 채 수줍게 웅숭그리고 있을 법한 꽃줄기들이 제법 용감하게 어깨를 펴고 꽃잎을 살짝 내민 것. 양지바른 곳에 요행히 자리 잡은 야생화가 너도나도 무리 지어 꽃잎을 피우니 와글와글 재잘재잘 시끄럽고 분주하기 짝이 없다. 노루귀도, 복수초도, 제비꽃도 오가는 등산객의 반가운 미소를 마주 대하며 발갈게 얼굴을 붉힌다.

천천히 설악산 등산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본다. 봄의 산은 다양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아직 바스락거리

는 낙엽 속에는 막 녹기 시작한 흙이 있고,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와 다람쥐의 어리둥절한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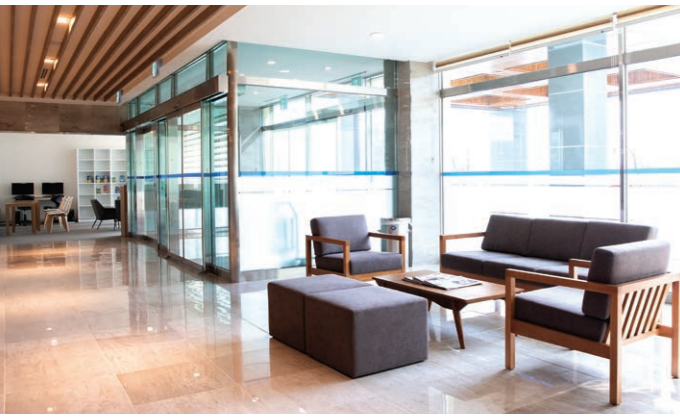
봄날의 보물찾기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난 뒤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설악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봄의 설악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꽃을 좀 더 만나보자.

### 안팎이 모두 아름답다

바위틈에서, 길가에서,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설악산의 꽃들은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난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취향대로 흙과 습기를 골라 안전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봄의 대명사 철쭉, 소가 잘 먹는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쇠뜨기, 어디서나 잘 자라는 이름도 예쁜 별꽃,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화책 주인공으로 더 유명한 애기똥풀, 무던하고 소박한 꽃다지까지... 각각 품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등산객의 발은 꽤 높은 곳에 이른다.

설악산은 크게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뉜다. 계곡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내설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일이다. 길이 워낙 다양해 가지각색 계곡을 만



날 수 있다. 백담계곡, 구곡담계곡, 가양동계곡, 십이선녀탕계곡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곡부터 대승폭포, 옥녀탕 등도 마주칠 수 있다. 자연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계곡길에서 듣는 물소리, 바위 틈틈이 질기게 피어난 잡초와 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외설악은 한계령과 미시령을 경계로 동쪽을 부르는 이름이다. 기기묘묘한 절벽과 폭포가 몰려 있다. 천불동계곡, 울산바위, 금강굴, 비룡폭포, 오련폭포, 토왕성폭

포 등이 외설악에 자리 잡고 있다. 사방에 봄이 밀려드는 설악산.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임을 꽃이, 풀이, 바위가, 물이, 계곡이 증명하고 있다.

**새 단장으로 모십니다, The-K설악산가족호텔**

설악산과 설악항의 중간쯤, 눈꽃이 내린 듯한 벚꽃 터널을 통과하면 The-K설악산가족호텔이 나온다. 마을의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이 건축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에 화려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는 요즘 호텔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그래서 더 소박하고 더 따뜻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이 처음 생긴 시기는 1982년.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주로 묵던 유스호텔로 시작해 지금의 가족호텔로 거듭난 것이 1996년이니, 이곳 속초와 설악산을 찾는 고객과 함께한 세월이 꽤 길다. 최근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리모델링을 마쳤다. 객실부터 로비, 지하층까지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매만지고 교체하고 새로 만들어 그야말로 교직원 가족을 모시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탈바꿈한 것. 지하에는 사우나, 코인 노래방, 코인 세탁실, 회의실, 고객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고, 각 객실은 구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새로 구비했다. 속초로 힐링과 여유를 즐기러 오는 롱 스테이 고객 역시 최고의 서비스로 맞을 준비를 마쳤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의 변화는 실내뿐만이 아니다. 야외에 유리로 만든 사계절 바비큐장을 만들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변 경치를 즐기면서 파티를 즐길 수 있게 한 것. 인근에는 운치 넘치는 상도문일리전통한옥마을이, 뒤편에는 청대산이 내뿜는 맑고 푸른 정기가,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시야 등 보고 또 봐도 가족 단위 손님을 맞기에 그야말로 최적의 공간이다. 낮고 넓게 펼쳐진 3층 건물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The-K설악산가족호텔. 아름다운 봄날, 속초에 간다면, 설악산으로 간다면 이곳에 반드시 들러 볼 일이다. 바로 교직원공제회원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테니까.

**The-K설악산가족호텔 부대시설**



대회의실



대강당



카페



바비큐장



세탁실



사우나



노래연습실



탁구장

**MINI INTERVIEW**



The-K설악산가족호텔  
이원만 운영부장

우리 호텔은 지난해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전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하고, 지하에 새로 만든 각종 편의시설은 가족 단위 고객, 롱 스테이 고객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편안함으로 회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시오.



롱 스테이 고객  
오중록 회원

저는 롱 스테이 고객으로 한 달을 예정하고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을 발견한 것은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회원이고, 속초와 설악산을 좋아해 자주 왔는데도 지난 2월에 이곳을 처음 발견했거든요. 속초에 호화로운 호텔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보름을 묵은 현재, 제게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최고의 호텔입니다. 남향이어서 햇볕이 잘 들고, 높은 지대에 있어 전망이 아주 좋아요. 직원들의 친절도 감동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롱 스테이를 허락해준 아내와 아이들도 몇 번이나 이곳에 다녀갔는데, 지내는 동안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봄을 맞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며 힐링할 수 있는 The-K설악산가족호텔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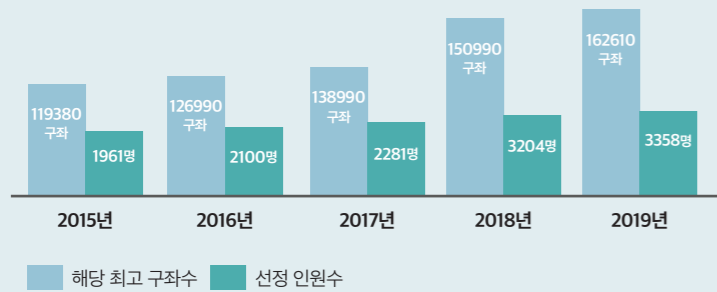
**The-K  
설악산  
가족호텔**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470-7  
033-639-8100



### 공제회 高구좌회원 3358명에게 축하금 지급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고구좌회원 3358명에게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축하금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장기저축급여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 이내인 회원 중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일반회원에게 지급한다. 공제회 가입기간 중 1회만 지급되며, 기존에 지급받은 회원은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다. 고구좌회원축하금 지급은 200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9년 5688명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누적으로 총 40573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상회원은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및 내방,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축하금은 회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48주년 기념식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창립 48주년을 맞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The-K타워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1971년 창립 당시 회원 수 7만여 명, 자산 13억 원으로 출발한 공제회가 2019년 3월 현재 회원 수 80만명, 자산 35조원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공제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의 끊임없는 성원과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올 50주년을 맞아 공제회가 지녀온 가치와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운데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북&JOY 도서증정 행사 4월 14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첫 '북&JOY' 도서증정 이벤트 <지친 마음, 위로가 필요해>를 진행한다. 김용택의 필사책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클래식>과 조해너 배스포드의 컬러링북 <비밀의 정원>을 공제회원 2000명에게 각각 증정한다.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클래식>은 간직하고 싶은 한국 대표 시 113편을 손으로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즐거움과 시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한다. <비밀의 정원>은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으로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저자의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이다. 색색의 펜으로 종이를 채워가는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들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4월 14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The-K SNS 기자단 8기 발대식

The-K SNS 기자단 8기 발대식이 2월 20일 서울 여의도 The-K타워에서 개최됐다. 8기 기자단은 공제회원 23명으로 구성됐으며, 발대식은 기자단 활동 안내 및 위촉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The-K SNS 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10개월간 공제회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에 공제회 관련 콘텐츠를 비롯해 교육, 생활문화, 여행 등 교육가족의 관심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바이럴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공제회는 네이버 블로그 '교육가족의 다락방'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 The-K호텔서울, 2019 와인페어 개최

The-K호텔서울은 4월 27 ~ 28일 양일간 세계 각국 100여 종의 우수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2019 와인페어(2019 Spring Wine Fair)'를 개최한다. 와인페어 입장료는 2만원이며, K멤버십회원, 한국교직원공제회원, 서초구민에게는 입장료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와인페어가 진행되는 동안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하기 위한 '와인페어 패키지'도 선보인다. 패키지는 일반실 1박, 와인페어 2인 초대권과 함께 모닝 뷔페 2인 식사와 테이크아웃 커피 2잔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공제회원가로 15만원이다. 패키지 고객에게는 호텔내 레스토랑인 우첼로, 더파크 이용 시 15% 할인의 특전이 주어진다. 봄을 맞아 향긋한 와인과 함께 좀 더 분위기는 나들이를 바란다면, 특별한 가격에 프리미엄 와인을 만날 수 있는 와인페어를 놓치지 말자. ☎ 02-571-8100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가족호텔 1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최근 세계적인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가 매년 국내 모든 호텔의 여행 리뷰를 분석해 발표하는 '2019 트래블러스 초이스'의 가족호텔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제주호텔은 가족형 객실 패키지 '디어 마이 패밀리'를 선보인다. 자녀와 함께하는 4인 가족을 위한 패키지로 스위트 객실 타입과 함께 조식 4인(어른2명, 어린이2명), 스포츠센터 이용권이 포함됐다. 2박 이상 예약 시 미니바 이용 무료, 그래픽 사진엽 필름 제공 등 다양한 특전이 있다. 디어 마이 패밀리 패키지는 오는 6월30일까지 공제회원에게만 특별 제공한다. ☎ 064-729-8100



### The-K호텔경주, 벚꽃 패키지 선보여

The-K호텔경주는 봄을 맞아 '벚꽃 패키지'를 5월 5일까지 판매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의 구성으로 12 ~ 17만원이다. 한편, 커피숍 아이리스는 제철과일인 딸기를 이용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또한 투숙객이 2일전 케이크 예약시에는 30%, 일반 고객은 20% 할인해준다. ☎ 054-745-8100, 054-770-9111(커피숍 아이리시스)

###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4월 한달간 '봄이 왔다 봄! 패키지'를 판매한다. 객실 1박, 조식 2인, 아메리카노 2잔의 구성으로 9만1000원~13만7000원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봄꽃축제를 즐기기 맞춤형 숙소다. 구례군 삼진강 줄기를 따라 남도대교-간전교 구간에서 '삼진강 벚꽃축제'가 열린다. 이중 문척면-간전면 구간에는 노란 개나리와 어우러진 '벚꽃터널'이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손색이 없으며, 벚꽃을 잘 관람할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061-783-8100



### <The-K 매거진> 4월 즉석당첨 이벤트

# 벚꽃이 만개하는 4월, 화사한 기대감으로!

이벤트 기간 : 4월 1일~4월 30일

봄이 왔나 봄  
나, 오늘 움직여 봄  
당첨인가 봄

# Spring

100개



SPC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모바일)

200개



CU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500개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모바일)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http://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4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5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가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행위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를 그리는 시간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단어들이 가라앉았습니다. 그사이 조금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렇습니다. 4월은 나를,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하늘은 '아름다운 동행' 촬영이 있는 날만 골라 걱정과 시련을 줄까요. 이번 4월호의 관건은 미세먼지. 대한민국 전역이 위험했으니까요. 야외 촬영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제주로 떠나는 그날, 전국이 미세먼지로 최악을 말하던 그날. 제주의 하늘만 파랗습니다.

김혜진-이현정 선생님과 제주로 간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만의 길을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여고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헤헤 호호 웃으며 우리의 일상을 주고받았죠. 그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바다는 달랠나 봄니다.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 바람과 파도는 거셴습니다. 바람을 이리저리 가로질러도 바닷바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바닷바람에 폭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바다가 주는 안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주의 바다색은 다르고 다릅니다. 김녕의 바다가 짙은 그리움을 나타낸다면, 함덕의 바다는 사랑스러운 물결로

포근히 안아줍니다. 그 덕에 곁을 지키는 사람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그녀의 눈을 마주 보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이현정 선생님은 김혜진 선생님을 알게 된 후 단 한 번도 눈을 오래 마주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그리는 시간은 바로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곁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맑게 웃었나, 빛나는 내 모습에 조금은 놀랄 정도니까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당신이 조금은 부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서 창에 비치는 내 모습은 전날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밝고, 조금 더 웃고, 훨씬 빛나 보였거든요.

4월, 평생토록 함께할 사람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곁에 내가 있다는 것, 바로 온전한 나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부디 나를 그리는 시간이 아름답기를 작은 손을 모아 빌어봅니다.

